

## 22장\_한울림합창단

### 아름다운 어깨동무 세상 만들기

당신은 나의 별입니다

별

박세미 지음/ 고영신 곡

당신은 나의 별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비춰줍니다.

햇빛에 가려 제가

제가 당신을 못 보아도

당신은 항상

그 자리 그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별이 되어

당신을 항상 비추어주겠습니다.

뇌병변지체장애 1 급인 열여덟 살의 세미가 자신이 지은 노랫말을 낭송하자 객석에서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세미의 낭송에 이어 소프라노 손영주 선생님께서는 세미의 노랫말에 전문 작곡가인 고영신 선생님께서 곡을 붙이신 새 노래 ‘별’을 불러주십니다. 세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세미만이 아닙니다. 세미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지난 6 개월간 아이들과 함께 한 노래 선생님들 모두가 오늘 ‘어깨동무 합창단’의 첫 공연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쁨을 함께 하려는 듯 종성이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6 개월 전에, 아니 불과 한두 달 전에도 자폐아인 종성이는 전혀 노래를 못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종성이가 발표회 때에는 춤을 추고, 소리를 크게 내고, 옆에 선 친구의 손을 힘주어 꼬옥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합창곡인 ‘사랑으로’를 부를 땐 합창단 선생님의 손을 꼬옥 쥐어 눈물을 뿔아놓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적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노래 ‘사랑으로’의 제목처럼 수많은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작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내가 당신의 별이 되어 주겠습니다.**

뇌성마비와 뇌병변장애우, 자폐아로 구성된 ‘장애우합창단’을 만들어 노래와 합창뿐 아니라 공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한울림합창단’ 선생님들의 노력은 첫걸음부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김창돈, 박민선 선생님은 장애우들과의 교류를 위한 교육 예비단계로 특수교육적응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의 특수학교 교사체험훈련은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두 분 선생님은 비장애우들이 갖게 되는 일상의 편견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특수학교와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을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고, 토론을 함께 하며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의 원장님과 특수교육 전문가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요청하는 등 많은 준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고라든지 학교 밖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문제, 아이들의 형편 그리고 교육효과에 대해 걱정을 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미와 승완이의 특수학교 담임선생님이신 이승민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는 합창단 선생님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형편이 어려워 오고 가는 교통편이 문제인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격려와 간절한 바람에 용기를 얻은 합창단 선생님들은 마침내 15 명의 아이들과 함께 소리와 음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 너무 힘든데, 그만 할까?**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몇몇 아이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기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양한 음악들이 들려지는 동안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따라오는 듯 하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강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막막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선생님”을 부르며 아이들이 힘껏 달려와

안길 때,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하며 위로할 때, 차 안에서 말썽을 부려 봉사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하지 말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오” 라고 목청껏 외치는 아이들 모습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운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선생님, 친구들의 노래를 수화연주로 구성해 볼까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2 단계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 회 이상 진행됐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노래 부르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1 살 난 동갑내기인 민철과 강욱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선생님, 이 노래를 수화로 만들어 볼까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수화연주는 생소한 것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창 밖만 보던 창범이가 작은 입 모양으로 소리를 내더니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다른 친구들이 노래할 때 가슴을 마구 두드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해 아이들의 행위는 그들만의 음악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어깨동무’ 가는 날은 달라요**

여름방학이 깊어 가면서 아이들은 음계와 박자, 노래의 구성을 배우며 점점 ‘소리에서 노래로’ 바뀌어가는 신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강사와 합창단 선생님들은 노래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연장 체험학습을 시켜주고, 문화시설을 함께 견학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면서 일주일에 2 회씩 4 시간 이상 진행되는 수업은 선생님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 수업의 참여로 말수가 많아졌다는 아이들을 두고 지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 역시 주 강사와 합창단 선생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 **이제는 함께 만들어 보는 거야!**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노래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초창장을 만들기 위해 그림도 그렸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창조해내는 욕구를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2 월에 있을 연주회를 위한 장소회를 위한 절차(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주회를 위해 장소를 섭외하는 절차들을 함께 도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연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제 공연을 보면서 공연체험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협조를 얻어서 ‘어깨동무’의 모든 아이들에게 대관신청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직접 처리하는 체험도 했습니다.

발표회를 앞두고 합창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화음에 대해 이해하고, 합창이라는 집단 예술행위를 체험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노래도, 관계도, 우정도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별이 되어 당신을 항상 비추어주겠습니다.**

합창단의 첫 번째 발표회가 있던 날,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선생님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미가 노랫말을 지은 ‘별’이 연주되고, 직접 시를 낭송할 때는 ‘꿈인 것 같아’ 모두들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유정이의 ‘하고픈 말’이 기타리스트의 즉흥연주로 표현될 때는 그 따뜻한 영혼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비추었던 선생님들의 바람처럼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을 향해 가장 밝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

부산 장애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합창교육 ‘어깨동무 만들기’

부산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